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창립 70돐을 맞이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방문하시어 교원, 연구사들을 축하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창립 70돐을 맞이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방문하시어 교원, 연구사들을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꿈결에도 그리며 지나가나 안기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는 순간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리었다.

참가자들은 창립 70돐을 맞은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보내주시고 오늘은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려 바쁘신 시간을 내어 대학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우리 나라 과학기술교육과 인민경제의 자립적발전, 국방력강화에 커다란 공헌을 해온 대학이라고, 이 영예로운 대학의 창립 70돐을 맞으며 교원, 연구사들을 직접 만나 축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미래를 위하여 교육과학 연구사업에 헌신분투해가고 있는 대학의 전체 교원, 연구사들에게 우리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전략적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서 김책공업종합대학 혁명사적관을 찾으시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종합적인 첫 공업기술대학을 창립하여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대학이 나아가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

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우리 당이 제일 믿고 자랑하며 내세우는 대학중의 대학이라고 하시면서 이 대학의 과학교육사업을 계속 강화발전시켜나간데 힘을 집중하여야 경제강국건설의 열쇠도 손에 확고히 틀어잡을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이 70년의 자랑찬 년륜을 아로새겨온 빛나는 전통을 깎듯이 이어 앞으로도 과학기술연구와 인재양성의 자랑찬 성과로 당과 혁명을 보위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학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학생들을 혁명성이 강하고 높은 탐구능력과 응용능력을 지닌 창조형의 인재, 밝은 과학자들로 키워낼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의 대학으로 전변시키는 것이 우리 당중앙의 의도이고 혁명의 요구라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고 이를 위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 개막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이 개막되었다.

개막식이 1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사를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최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어번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

였다.

그는 모든 선수들이 경기마다에서 체육기술과 집단의 조직력, 단결력을 시위하고 높은 경기성적을 쟁취함으로써 우리 당의 대중체육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국찬가》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체육대회 상징기발이 게양되었다.

체육대회에 참가한 단체들의

분렬행진에 이어 황해북도와 라선시사이의 남자배구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평양시와 각 도(직할시)에서 선출된 각계층 근로자들과 가두녀성들, 청소년학생들, 체육인들이 참가하며 평양시안의 경기장, 경기관 등에서 전문체육부문경기, 대중체육부문경기, 체육회오락경기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개막식은 평양시에서 진행되었다.

박철민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개막사를 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 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의 청년대학생들이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변영에 이바지할 불

라하는 애국의 일념을 안고 과

학탐구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과정에 이룩한 1 950여건의 가치있는 발명 및 창의 고안, 새 기술제품들이 출품되었다.

개막식이 1일 과학기술전당에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실천강령

지금 은 겨레와 전세계는 평양수뇌상봉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발표에 세찬 충격과 감동의 격랑에 휩싸여있다.

긴긴 세월 민족분열의 고통과 환을 새기며 항시적인 전쟁위협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와 번영, 통일은 더없이 소중하다.

지난해말까지만 하여도 일각에서는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터지고 그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그러던 조선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따뜻한 봄빛이 흘러들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 발표되어 겨레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으니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열화같은 민족애와 드넓은 자주통일

의지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북과 남은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하여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던 국적인 순간들을 련이어 만들어내고 좋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북남 사이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실현되었으며 국제경기에 단일팀으로 참가하여 민족의 기상과 영예를 떨침으로써 온 겨레에게 커다란 민족적공기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북남사이에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향한 의의있는 사업들이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원칙에서 일관하게 진행되고있는것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확고히 견지해온 결과이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풍성한 수확을 안고 진행된 평양수뇌상봉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민족자주의 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과시한 역사적사변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력사의 새 출발을 알린 판문점선언을 충실히 리행하여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실천강령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눈부는 민족의 새 출발을 알린 판문점선언을 충실히 리행하여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실천강령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눈부는 민족의 새 출발을 알린 판문점선언을 충실히 리행하여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실천강령이다.

민족의 새로운 희망과 강렬한 통일열망을 꽃피우기 위하여서

는 우리 민족모두가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뜻과 마음을 합쳐 평양공동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함께 열어 나가야 한다.

그 어떤 반통일세력이 막아나서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넘긴다는 민족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파멸을 면치 못하리라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첩리이다.

은 겨레는 새로운 역사적시기에 마련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충실히 리행하여 평화롭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보

복을 맞춰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조선반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계기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세계 각국 정부들의 지지환영을 받고 있다.

로세아외무성이 공보를 발표하여 제5차 북남수뇌회담의 결과를 환영하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공보는 평양에서 있는 북남수뇌회담과정에 이룩한 합의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쌍방은 조선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지향을 확인하고 정치, 군사, 경제 및 인도주의분야에서 협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

공보는 모든 관련국들이 정치외교적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핵문

제와 기타 문제들을 조속히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였다.

몽골대외관계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 각하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상봉과 회담이 또다시 진행될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

번 회담에서 발표된 《9월평양공동선언》은 조선의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라오스외무성은 조선반도정세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데 대하

여러 나라 정부들 환영

여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관련국들이 훌륭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외무성은 북남수뇌분들께서 서명하신 《9월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외무성은 평양에서 진행된 상봉이 조선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열어놓은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폴란드외무성은 조선인민의

념원일뿐아니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의사인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룩되기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니까라과정부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관련국들이 서로 협조해나갈것을 주장하였다.

캄보자, 웨남, 인디아, 벨라루스, 도이칠란드, 브라질, 메히코, 우루과이, 에파도르, 쯔스파 리카 등 많은 나라 정부들도 북남수뇌분들께서 서명하신 《9월평양공동선언》이 리행되어 조선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가 열릴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